

지역 소식통

완주군, 2024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완주군이 2024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28일 완주군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자 오는 12월 6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이다.

모집인원은 일반형(전일제) 20명, 일반형(시간제) 7명, 복지형(참여형) 50명 등 총 77명이다.

일자리 참여자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근무하며, 근무장소는 행정기관 및 사회 복지시설, 비영리민간기관 등이다. 신청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완주군청 사회복지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441억 지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이달 안으로 1만3,947 농가에(법인포함) 44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행 4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밭작물 등 기존 직불제가 소농과 밭농업보다 대농과 논농업을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던 점을 보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2020년 첫 시행했다.

시는 지난 2~5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를 접수하고 10월까지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와 신청 농업인, 소농 직불금 지급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농지 형상 유지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해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했다.

대상자 중 0.1~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농가 단위로 120만 원이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은 3,132농가에 37억5,800만 원이 지급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공공예금 이자수입 65억 전망

재정 확충 총력 기울여 시민의 복리증진 기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자금 유동성 확보와 금리 상황을 반영한 체계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2023년 65억원의 이자 수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지난해 35억원의 이자 수입을 고려하면

85%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시는 최근 경기 불황 및 침체로 큰 폭의 지방교부세 감소와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세출 규모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자부재원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금리가 유지되는 금융환경에 발맞춰 이자 수입 증대의 작기로 판단해 여유자금을 금리가 높은 정기

예금에 전략적으로 예치하고 있다. 또한 추후 금리 인상 등을 반영한 여유 자금의 탄력적 운용과 자금관리 및 지출업무의 통합으로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금리변동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세출예산의 안정적 집행과 이자 수입 증대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내년에 파종할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벼·옥수수·씨감자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내년에 파종할 정부 보급종 종자를 읍면동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정부 보급종 종자는 정부가 생산·공급·보급하는 종자로 엄격한 검사규격에 합격한 종자로 순도가 높고 품종의 고유특성이 잘 보존되어 있다. 또한 발아율이 높고 초기 생육이 왕성하여 결과적으로 높은 수출을 올릴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할 벼 품종은 조생종은 해당, 중생종은 해품, 중만생종은 신동진, 참동진, 안평으로 5개 품종이다.

신청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전량 미소독 종자로 보급되므로 병해충 예방을 위해 파종전 소독이 필요하다. 공급가격은 공공비축미수매가격이 확정된 12월 말에 추후 고지할 예정이다.

옥수수 보급품종은 미백2호, 미흑찰, 흑점2호, 강일옥, 오료판이며 신청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이다.

읍면동사무소나 농협 구매계에서 신청 가능하다. 강일옥은 종실사료용이며 2kg에 2만2,000원이고 미백2호, 미흑

찰, 흑점2호는 1kg에 2만7,000원이다. 씨감자는 수미만 신청가능하며 한박스(20kg)에 3만4,400원이다. 읍면동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한 종자는 이형수가 많고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식 정선시설로 엄선한 정부 보급종 종자를 심는 것이 생산성 향상과 병해충 방제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편, 콩 보급종 종자 신청은 2024년 2월 1일부터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미래발전을 위한 경영인 포럼 개최

관내 경영인·금융인, 소통의 장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8일 오전 7시, 지평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2023년 제3회 김제시 미래 발전을 위한 경영인 포럼'을 개최했다.

경영인 포럼은 김제상공회의소 설립을 위한 김제시 경영인의 현안 정보 공유와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금융기관 지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포럼 초청 강사인 이강진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신 전북경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경제정책에 따른 전북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특강을 펼쳤다.

김제시 미래발전을 위한 경영인 포럼의 참석 대상자는 관내 기업 대표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회원 등이며, 김제시는 내년도 김제상공회의소 설립 추진을 위한 경영인 포럼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김제시는 28일 오전 7시, 지평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2023년 제3회 김제시 미래 발전을 위한 경영인 포럼'을 개최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이 올해 마지막 경영인 포럼이었는데 이번 강연이 김제시 경영인의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내년도에도 경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ESG 경영을

비롯한 각종 유익한 경제 강연으로 김제상공회의소 설립 및 경영인 역량 강화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W푸드테라피센터 전경.

완주군, W 푸드테라피센터 운영자 모집

30일 현장 설명회... 수익구조형 비즈니스 모델 육성 예정

완주군이 내달 13일까지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한 W푸드테라피센터 운영자를 모집한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W푸드테라피센터는 지난 2022년 6월에 개관했으며, 완주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지로 치유농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푸드테라피 시스템 구축 시설이다.

식품제조·즉석식품 공유주방이 각각 구비돼 있으며 일반음식점 운영이 가능한 2층형 매장과 HMR 판매관, 치유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시작했으며, 군은 올해까지 보조사업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수익구조형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할 방침이다.

가격은 공고일 기준 전라북도에서 주(소재)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단체, 법인으로 선정된 운영자는 2년 동안 운영하게 된다.

오는 30일 현장 설명회가 진행되며, 지원자는 내달 13일까지 완주군청 6층 경제식품과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내용은 완주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미경 경제식품과장은 “완주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지인 W푸드테라피센터가 농식품 산업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솔선수범’

김제, 2024년 1월부터 시행 앞두고 12월 한달동안 시범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을 오는 12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2024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은 환경부가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유예한 가운데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자원순환의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나가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으로 사무실에서 △1회용컵(종이컵) 대신 개인텀블러나 다회용컵 사용하기 △민원인 방문 시 다회용컵 및 접시 사용하기 △개인휴지통이 아닌 공동분리수거함 사용하기, 회의 및 행

사에서 △회의자료 출력 시 단면이 아닌 양면, 컬러 대신 흑백 인쇄 사용하기, 식사 및 간식 구입시에는 △1회용품 사용이 많은 배달음식을 자제하고 관내식당 이용하기 △배달음식 주문 시 1회용품(나뭇가지락 등) 사용 거절하기 등 작은 실천으로 친환경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없는 깨끗한 청사를 만들어 나갈 예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